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58호
서기 2002년 2월 27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한 생각이 우주를 삼키고 토하게 할 수 있어

대전에 와서 여러분과 한자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佛)은 일체 만물만생 생명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그게 '불'입니다. 교(敎)는 만물만생이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말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가 다르고, 기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 안에 모든 종교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이 같이, 과거·현재·미래가 같이 짊어져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끝난 데 없이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가 그렇게 광대무변해서, 우리가 돌이 아니게 죽고 사는 데도 말입니다.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 끝난 데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라는 그 자체를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한도량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자기 주인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하고 이름은 많죠.

그런데 첫째, 우리 몸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불교도 있고, 세상에 벌어져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뭐가 벌어져 있었습니까. 나 자신이 없이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고깃덩어리 밑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발견하고 찾는다" 내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온 것이 이름해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화두를 또 붙입니까? 또 겹대기로 붙여 놓고 그게 끊어질까 봐 앓을 쓰고 그런다면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숙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나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무엇을 실행하십니까, 지금? 어떤 것을 실행하시느냐구요? 우리 몸 안에 해어질 수 없이, 세포 하나 하나에도 오장 육부에도 모든 생명들이 꼭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어휴 배가 고파서 내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물 한 컵을 마셔도 더불어 같이 마셨고, 가고 와도 가고 음이 없이 같이 했고, 보고 듣고 말할 때도 같이 한 거지, 어째서 자기 혼자 한 것입니까? 자기 몸 안에 공장들이 많습니까. 심장 공장, 대장 공장, 소장 공장, 식도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뱀 이름을 해아릴 수 없이 공장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 한 공장에서만 파위가 일어나도 육신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스리는 선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 뿌리이자 주인공이요.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이끌고 가니까요. 수억 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인간으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했겠습니까? 봐도 본 게 없고, 해도 함이 없고, 더불어 같이 했으니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가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육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일거수일투족이 나 혼자 한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고,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행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돼.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각자 여러분이 다 부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까닭이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 여래의 집이라고 한 것도 그 까닭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통이 어느 한 군데서만 파위가 일어나도 견딜 수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망가진다면 누가 고치니까? 누가 와서 고쳐 주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집을 삼고 살고 있어요. 이 몸은 그 생명들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날 내가 죽겠으니 내가 살겠으니, 내가 잘 벌었으니 내가 망했으니, 내가 됐으니 이러거든요, 모두가.

한 생각이 우주를 삼킬 수도 있고, 토해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생각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한 생각을 잘하면 입력이 잘 돼서 현실로 나오고,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가 운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팔자 운명이 붙어 돌아가는 거지 팔자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관습에 쫓겨서 바다와 같은 생각을 조금도 못하고 계산 분들도 있고, 바다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이 세상에 나온 구별이 바로 돌아가는 구별도 됩니다. 들고나는 구별은 인간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허허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만약에 중생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칠 때에 어떻게 해야 배가 안 뒤집힐 수 있을까. 침착하게 앉아서 선장의 마음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이어주는 것이 배를 기는 데까지 잘 끌고 가겠습니까. 온통 일어선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것 찾고 저것 찾는다면 배가 안 뒤집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을 한 마음으로 조복을 받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모두 제각기 따로 보고 따로 한단 말입니다.

만 붙어라도 일 붙이요, 일 붙도 공했다고 했거늘, 50%의 거죽 물질계로만 치닫고, 행신을 뺏기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으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은 어떻게 실천을 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자기의 빙장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게끔 말로 어떻게 다하리까.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자기가 보고 듣고 들이고, 보고 듣고 되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보살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아요.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님이 되고, 사위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남편이라고 모셔 놓고, 아들이라고 모셔 놓고, 사위라고 모셔 놓고, 아버지라고 모셔 놓고, 형님이라고 모셔 놓고, 아우라고 모셔 놓고, 상사라고 모셔 놓고 제각기 믿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부처님의 한 생각이 아미타요, 한 생각이 아축이요, 한 생각이 관세음이요, 지장이요, 칠성이요, 웅신, 지신 아니 되는 게 없이 한 생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각각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니 한 구별이 아니라 수십 구별이 되죠. 한 구별이라야만 듣고나고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물리가 터져서 참나가 출현히 등장할 수 있는데도 이리 파고, 저리 파고 그러니 무슨 문 없는 문이 찾아집니까. 또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하겠군요. 사람

금. 이 몸통이 하나가 돌아가는 것도. 그런데 이 하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 집니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하는데 하나마저도 공해서 허공에 꽃이 핀 거와 같고, 열매가 무르익어서, 모두 제 나무에서 무르익으면 맛이 만 가지 천 가지, 제각기 맛이 나느니라 했습니다.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우리가 왜 먼 데서 찾습니까? 나로부터 찾아야죠.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멀고 너무 멀어 찾아라. 너를 알아야 먼 사람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법당에 가시면은 여러 부처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딱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한 도량, 한 생명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으세요. 문수도 거기, 보현도 거기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면

남의 것 바라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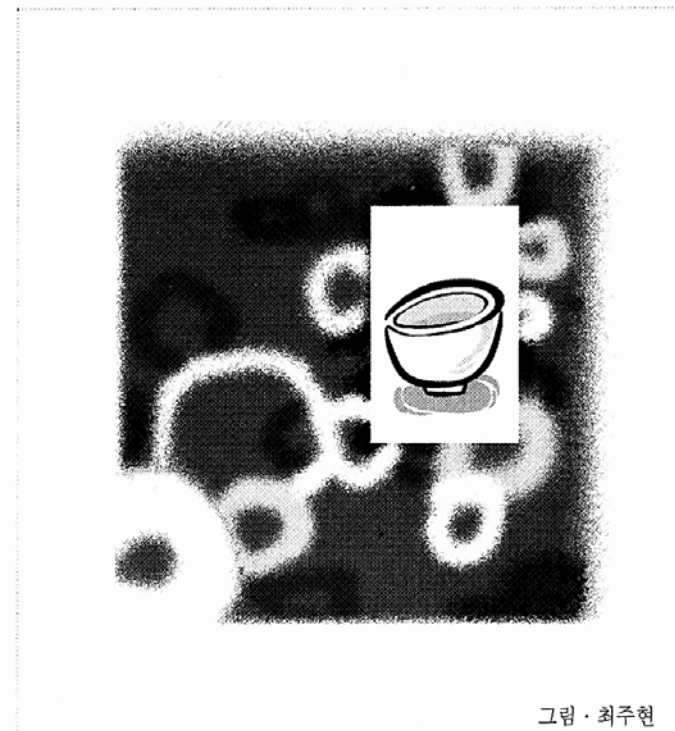
스스로 행복 만드세요

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탄생이 되려면, 내 영혼의 뿌리와, 즉 말하자면은 그 영혼과 더불어 영혼인, 영혼은 근본 뿌리가 아니에요. 수레와 같은 거죠. 영혼하고 겹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성·경계성·업보성·유전성·세균성이 바로 영혼과 더불어 부처이 돼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이 세상에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팔자는 원래 없는 것

그렇게 탄생을 하면은 오신통이라는, 요즈음 언어로 고친다면 남의 속을 심안으로 보는 거, 즉 타심통·천안통·천이통·신속통·속명통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컴퓨터라고 해도 되는데, 그 컴퓨터에 과거에 입력이 돼서 현실에 차례차

부치고, 한 생각을 냈다 하면은 문수 법신이고, 한 몸을 움직여왔다 하면은 보현신, 바로 화신이란 말입니다. 따르따로 있다고 생각을 마세요. 그럼 부처님이 아니게요? 부처님께서 한 생각으로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시며, 보는 사이 없이 보시며, 또는 하는 사이 없이 하시며, 내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전체 자생중생들이라고 그러죠. 이 자생중생에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돌아가니까 조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속에 생명들이 있는 것도 한마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었어요? 내 몸 속의 모든 생명들을 한마음으로 쫓아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것을 내가 내 주먹으로 쥐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삼천 년 전후에 과거에 입력이 돼서 현실에 차례차



그림·최주현

다는 문제입니다. 제 뿌리는 제 짝을 푸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수분과 철분, 이런 것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님을 위애다 턱 얹혀 놓고 그냥 죽자살자 매달려서 벌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딸 팔되게 해달라고 빌지만 복은 한 바가지 얻을지 언정 절대로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란 뜻이 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독독질을 했던 선행을 했던 우주천하일체 만물만생이 직결이 돼 있으니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전부 수레처럼 가설이 돼 있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아니까는 대모에 그대로 입력이 되는 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내 팔자가 이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팔자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받는 거지,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먹고 통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는 누가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으로, 이 물 한 방울과 저 물 한 방울을 한 컵에다가 넣는다면 한 컵이지 두 컵입니까? 마음은 체가 없는데, 수많은 빗방울이 바닷물로 들어갔어도 빗방울이라고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모든 것은 자기 주인공 뿌리에다 맡기고... 그게 바로 자아부처의 이름이니까요. 자아부처가 뭘 때까지 주인공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파도 하나하나 불되고 다니지 마시고, 바람을 제우면은 다 가라앉는 거를...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유스럽게 살기란 극히 어려운 것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구 관세음보살, 아이구 지장보살,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시오, 누가 좋은 데로 가게 해 줄까? 자기가 좋은 데로 가게 해야지. 행복을 누가 갖다 주나요? 내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공짜나 남의 것을 버리지 마시고 내가 해서 내가 행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몸을 지금 먹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내가 먹은 겁니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깐 이걸 훔쳐먹었다고 합시다. 내가 훔쳐먹은 겁니까? 훔쳐먹어도 더불어 같이 먹었기 때문에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요. 묘하게 인간 자체에 모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라고 웃돈을 갖다줘도 안 하지만, 그러니 물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먹고, 이런 도리를 아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질도 안 해요. 남한테 언짢은 일도 안 하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죽일 때, 더불어 같이 했으니까, 즉 말하자면 나의 몸 속에 있는 것만 같이하는 게 아닙니다. 공덕이란, 과거·현재·미래 전체가 한데 합쳐서 들어오는 오늘로, 그래서 미래부터 부르죠. 현재부터 부르는 게 아니구요. 과거·미래·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입니다.

네 마음부터 발견하라

여기 걸어오실 때에 걸어온 발자취를 짚어지고 오시지는 않으셨죠? 걸어오는 사이 없이 왔죠? 마음을 그렇게 써야 할 텐데, 그리고 누가 집어가는 말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요놈의 금 덩어리나 돈이나 통장은 장 속에다가 꼭 넣고 잠깐만 되죠. 그런데 장 속에다가 넣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 속에다가 온 천하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살아야 이거예요. 함이 없! 모든 게 내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물 한 컵 마신 것도 나 혼자만

18면으로 계속

팔자·운명 생각탓에 생기는 것

레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사람이 라고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뺨도 되고 또는 개구리도 되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지금 현실에 그렇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끝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이 현실에 차례로 나오는 것이지, 팔자 운명이라는 게 왜 거기 붙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타의에서 구하려고 기도를 한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왜 공덕이라고 했을까요. 모두가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내 한 몸통이도 한마음으로 공생, 공체, 또는 공용으로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

영원한 오늘. 자유권. 그리고 도의 길은, 돈오는 이 세상에 탄생함과 같고, 점수는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들이겠습니까, 모두가, 이름이 굉장해서 굉장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요만한 거라도 실천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도 마음에 안에 있는 중생들과 한 마음이 된다면, 바로 그 한마음으로 서 분자로 화할 수도 있고, 입자로 화할 수도 있고, 입자들이 나가서 조질도 할 수 있고, 모두 응신이 될 수도 있고, 천백억화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이 나면 한 생각에 들어 하늘에서 짹짹 쏟아져서 다 끌 수도 있거니와 바람으로 인해서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부처이며 생각했다 하면 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잘해야 이겁니다. 반드시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된

가짜는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1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